



김현수와 페르난데스.

플렉센과 이민호.

연합뉴스

외나무 다리 대결... 고척돔 가는 주인공은?

7년 만의 만남... 5번째 잠실라이벌 가을 대전 두산, 알칸타라·플렉센 막강 원투펀치 장전 LG, 윌슨 선발 출전... 방망이가 관전포인트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더그아웃 시리즈를 펼친다.

LG는 2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준플레이오프(준PO·3전2승제)에 진출해 두산과 올해 명운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인다. 두 팀의 준PO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잠실 라이벌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대결하는 것은 2013년 플레이오프 이래 7년만이자 역대 5번째다. 준PO에선 LG가 2승을, PO에선 두산이 2승을 거둔 점이 눈에 띈다.

1993년 준PO는 포스트시즌 첫 잠실 데뷔였다. 정규리그 4위 LG는 3위 OB 베어스(현 두산)를 2승 1패로 눌렀다.

1998년 준PO에서도 정규시즌 3위 LG가 4위 OB를 2승으로 꺾었다. OB 2루수 에드가 캐세레스의 포스트시즌 사상 첫 끝내기 실책 덕분에 1차전을 잡은 LG는 여세를 몰아 2차전에서 대승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과 2013년 플레이오프에선 두산이 모두 웃었다. 양대 리그가 시행된 2000년, 드림리그 2위 두산은 매직리그 1위 LG

와 한국시리즈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 4승 2패로 이겼다.

최근인 2013년 플레이오프에선 두산이 LG를 3승 1패로 따돌렸다. LG는 그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위를 확정했다. 1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지만, 준PO를 거쳐 올라온 정규리그 4위 두산에 힘 한 번 못쓰고 무릎을 꿇었다.

5번째 포스트시즌 대결에서도 두산이 이기면 LG전 3연승을 달린다. LG가 반격하면 22년 만에 반격에 성공한다.

두산의 최대 강점은 라울 알칸타라와 크리스 플렉센이 이끄는 막강한 원투 펀치다. 기온이 급강하한 야간 경기에서 알칸타라의 광속구가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출전한 두산 선수들은 큰 경기 도

사들이기도 하다.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선수가 11명이 나와 내년에 도이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두산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많다.

시즌 막판 타격감이 떨어진 탓에 키움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고전한 LG 방망이가 단시간 내에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 중인 타일러 윌슨이 플레이오프에 합류해 케이지 케리와 1, 2선발을 이루는 점은 그나마 LG에 다행스럽다.

창단 30주년, 세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LG는 구심점 박용택의 화려한 은퇴 무대를 위해서라도 두산을 넘어 고척 스키야드 방향으로 향하고자 몇 먹던 힘을 낼 것이다. 연합뉴스

제주 강윤성 U-23대표 발탁... 이집트 출국

13~14일 이집트·브라질 상대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의 강윤성(23)이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 일원으로 이집트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 김학범 감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로 축구회관에서 이집트 친선대회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강윤성이 이름을 올렸다.

강윤성은 제주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프로통산 1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으며 리그 21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의 활약을 펼쳤다. 지난 1일 서울이랜드전

(3-2 승)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으로 제주의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다.

U-23 대표팀에서는 측면 수비수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참가해 우승과 함께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기쁨을 누렸다. 지난 10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A대표팀)과의 스페셜매치에도 참가했다.

강윤성은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대표팀에서도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K리그 MVP 용호상박... 손준호나 주니오나

내일 대상 시상식서 결정

'K리그 최초 4연패 주역' 손준호(28·전북)나, '득점왕' 주니오(34·울산)나.

올 시즌 한국 프로축구 K리그1(1부) 그라운드에서 가장 빛난 별이 5일 가려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 2020'을 연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MVP다. 올해 K리그 MVP 후보는 손준호, 주

니오, 일류첸코(포항), 세징야(대구)다. 토종 미드필더와 득점 1~3위 자리를 나눠 가진 외국인 공격수 간 경쟁 구도이나 손준호와 주니오의 대결로 압축된 분위기다.

손준호는 올 시즌 25경기에 출전해 2골 5도움을 기록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 특성상 경쟁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성적이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손준호는 올 시즌 전반기 중원에서 굳은일을 도맡아 하면서 팀이 역전 우승 및 K리그 최초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힘이 됐다.

프로연맹이 집계하는 부가 데이터에 따르면 손준호는 이번 시즌 프리킥(137개), 지상볼 경험 성공(75회), 패스 차단(171회) 등의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패스 횟수(1584개)에서는 2위였다.

이에 맞서는 주니오는 올 시즌 27경기에서 26골(2도움)을 몰아넣어 일류첸코(19골), 세징야(18골)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K리그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득점왕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경기 수가 지난해 38경기에서 27경기로 줄었지만 주니오의 경기당 0.96골은 K리그 역대

득점왕 중에서도 1위에 해당한다.

주니오로서는 울산이 2년 연속 전북에 역전 우승을 허용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K리그 MVP 수상에 '우승 프리미엄'은 무시할 수 없다.

1983년 K리그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우승하지 못한 팀 선수가 MVP에 선정된 것은 6차례뿐이었을 만큼 팀 성적은 수상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올해 손준호가 수상하면 2017년 전북 이재성 이후 3년 만에 다시 우승팀에서 MVP가 나오게 된다.

주니오가 선정되면 3년 연속 MVP는 준우승팀 차지가 된다. 또한 2004년 나드손(수원), 2007년 파바레즈(포항), 2012년 대한(서울), 2018년 말경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외국인 MVP로 이름을 남긴다. 연합뉴스



“슛은 자신있다” 3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원주 DB 경기에서 원주DB의 녹스가 슛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세계는 지금 스페셜 8:5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10:0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9:45 누가 뭐래도(재) 10:2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1:00 도도솔솔라라솔(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전 해피플러스 8:50 MBC 뉴스특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1부 11:00 MBC 뉴스특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2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S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1부 10:30 S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2부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과 눈물 유치원 8:45 워킹킹 리턴즈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 16:15 로빈 후드 16:30 땀과 눈물 유치원 18:00 생방송 특목보너스 하나 19:30 자이언트 팽TV 22:45 극한직업
12:00 특집 KBS 뉴스12 13:00 역사재발 그날(재)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16:00 특집 시사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푸리에의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전교톱10 핫클립 15:10 자동공부왕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00 신비이퍼트 17:30 골똘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50 MBC 뉴스특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3부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생방송 오늘 저녁	12:00 SBS 뉴스특보 2020 미국의 선택 3부 14:00 특집 뉴스브리핑 16:00 제3회 제주국제드론플라이 페스티벌 토크콘서트 1부 17:00 SBS 오 뉴스 17:35 트롯신이 떴다 2 17:50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타트 스페셜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학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랑이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의 숲 13:00 CBS 뉴스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방송 특별대담 미국의 선택, 한반도 영향은? 22:55 더 라이브 23: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도도솔솔라라솔 22:10 도도솔솔라라솔 1부 22: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부 23:1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부 23:50 스튜디오 K	18:15 MBC스포츠 2020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LG-두산(1차전) 22:00 MBC 뉴스데스크 22:50 라디오스타 1부 23:50 라디오스타 2부	18:30 전국 TOP10 가요쇼(재) 19:30 특집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타트 1부 21:35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타트 2부 22:05 트롯신이 떴다 2 리스타트 3부 22: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부 23:2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30 제주의 가치 재발견 9:00 KCTV 뉴스 10:30 세계의 99번째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KCTV 다스스페셜 14:00 해외의 양정점 16:00 KCTV 다스스페셜 17:00 KCTV 뉴스 17:40 VOD 김용우의 영화산책 18:30 제주의 가치 재발견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4월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48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념하라. 60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2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좋은 소식이 오면 외모에 신경 쓸 것. 84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이 이익이 따른다.

42년 동업, 협력의 일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 54년 매대나 문서를 주고 받을 일이 찾아온다. 66년 의욕과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 원함. 78년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자격증이나 공동사업이 원만. 90년 행복해지도록 자기최대 연출이 필요하다. 옷다보며 즐거움과 행복이 온다.

37년 갑언이설에 고민. 보증을 서면 불리하니 보류하라. 49년 집안의 어른으로 인한 근심과 우환이 있다. 병든안 또는 상가들 갈 일이 있다. 61년 동업, 협조자가 생긴다. 재물 이익이나 매출 증가. 73년 기대하지 않던 기쁨이 있고 약속이 있다. 75년 변덕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좋은 답이 온다.

43년 자녀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 먼저 자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 55년 직장인 스펀지. 사업장의 격정이 가정에서 는 녹듯이 해라. 67년 지친 몸이 휴식을 원하나 이후에 약속이 잡힌다. 79년 사회생활은 종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모임 시 가는 늦지마라. 91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라.

38년 음식 또는 친목을 함께하거나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50년 재물 또는 인복이 약하니 보증이나 금전거래는 경중히 거절하라. 62년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길 것. 교육분야업은 진전이 있다. 74년 셀러 리먼은 의욕저하가 될 수 있다. 86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44년 이동, 변동 이사, 창업 등 마무리에 바쁘다. 56년 부부간에 불화나 부모님께 근심이 생긴다. 찾아보는 것도 좋다. 68년 집안일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라. 내 힘이 필요하다. 80년 판단력이 흐려지고 현실수 망신수 조심해야. 92년 마음이 넉넉한 일로 상의가 있거나 형제간에 친목이 생기기도 한다.

39년 마음을 달래줄 벗 또는 손님이 찾아온다. 음주는 적당히. 5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적 교제는 신중. 63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75년 친목 또는 소꿉친구가 귀가 늦어진다. 87년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45년 자유가 그리운데 갈 곳은 마땅치가 않다. 57년 나의 일로 고민할 것인가. 자녀문제로 고민 할 것인가. 6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81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93년 마음이 넉넉한 자는 풍요롭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지 마라.

40년 자기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 52년 소신껏 일을 추진하면 의외의 결과가 있다. 64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좌불안석이다. 자녀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76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88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인기직업은 갈 곳이 많아진다.

41년 과격한 행동은 건강에 해가 되니 무리한 행동은 금물. 53년 집안 어른에게 우환 또는 상가에 갈 일이 있다. 안부전화를 주거나 방문하라. 65년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의 원천. 친목 도모 필요. 77년 집안-취업으로 근심이 있고, 미혼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다. 89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심이 있다.

46년 모임이 있으면 핑크색 옷을 입으면 우러러 본다. 58년 이동 이사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가 언행 자체. 70년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정보력을 동원할 것. 82년 직장인은 뒷사람 정찬이 있고 실업자는 희소식이 있다. 94년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봉사할 일이 주어진다.

47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질투할 일이 생긴다. 59년 시대 또는 처가에 갈 일이 생긴다. 다만 언행은 조심할 것. 71년 금하며 돌아갈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83년 노력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이익이 있고 결과가 있다. 95년 밝음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법. 순리대로 행함이 좋은 하루.